

新技術 개발만이 환경관리의 지름길

국내최초 '난분해성 인쇄잉크폐수와 오수합병처리' 성공,
제3회 환경관리장 금강대장을 수상한 학구파 환경인

■ 편집부



▲ 환경관리장 최고의 영예인 금강대장 수상 후 아내와...

鎬 환경관리인은 요즘 쏟아지는 축하전화가 즐겁기만 하다. 환경관리경력 12년째인 그는 본 연합회에서 제정한 제3회 환경관리장 금강대장의 영예를 안은 화제의 인물이다.

李 관리인이 한국조폐공사에 몸담은 것은 올해로 18년. 지난 79년 수질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부터 '환경관리'에 입문했다.

그해부터 대전조폐창의 관리인으로 공사 기술연구소 및 이곳 옥천조폐창의 배출·방지시설의 공정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의 업무를 도맡아 해냈다. '85년부터 '88년까지 계속된 이 과정에선 넘기기 힘든 고비도 많았다고 한다.

“새벽 서너시까지 감리서류를 작성했죠. ...정말 어려웠을 때 환경관리인을 그만 두려고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솔회하는 그의 조용한 미소가 오히려 그때의 일들을 대변하는 느낌이었다. 이곳 옥천조폐창으로 옮겨온 '88년 이후에도 철저한 환경관리로 오염 물질을 저감시켰다.

“**꼬박** 2년동안 인쇄잉크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난분해성 및 중금속에 대한 처리방법과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능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PVA로 침전조, 포기조

등의 모형시설을 만들고 심지어 최종 방류수에 붓어까지 기르면서 실험을 거듭, 그 연구결과를 환경처 기술감리단에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 환경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李瑾

그 가운데서도 서두에서 언급된 난분해성 인쇄잉크 폐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획기적이었다. 고농도의 인쇄잉크폐수를 1차 화학적처리후 오수처리시스템의 미생물을 이용해 2차 생물화학적처리를 시도, 국내 최초로 난분해성 수순식 인쇄잉크폐수와 오수의 합병처리를 성공시킨 것이다.

이로인해 대청호 상류에 위치한 창 의 폐수로 야기될 수 있는 대청호의 수질오염예방은 물론 인쇄잉크폐수의 완벽한 처리방법도 정립하였다.

지난해엔 이 연구논문으로 공사사장표창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관리인은 도금배출시설의 세정집진기의 철저한 운용관리로 Cu, Cr, Ni,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도 한몫을 했다.

요즘엔 소각로 설치와 실험실 증축문제로 부산하다.

“금강대장을 수상하고 내려가니까 본사에서는 물론 여기저기서 축하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희 창 휴게실에도 이틀이나 상장과 메달이 전시되어 타 부서 직원들도 관심있게 봐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큰 상은 생각도 못했는데, 수상하게 되니 기쁨과 함께 전국의 동료관리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수상으로 인한 기쁨과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철두철미한 성격탓에 컴퓨터



▲12년째 몸담고 있는 옥천조폐창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 별명인 그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기사 1급 자격증외에도 소방설비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 화공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만큼 열성과 다. 여기에 10년을 넘게 환경업무를 전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협의회 옥천·영동·보은 지구 분과위원장을 맡아 회원들의 자질향상과 화합에 힘쓰는 것은 물론 자연보호캠페인과 국토대청결운동등 환경보전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엔 충북협의회 소속 35명을 초청-자신이 설계했지만 참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졌다는-폐수처리장을 견학시키기도 했다.

“사실 실력이 대단한 환경관리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에 맞는 응분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환경관리인들의 지위향상이 미흡

해 아쉽다는 그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질의 갑작스런 변화와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들기도 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될 것과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성실한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 2남 1녀의 아버지. 그는 곧잘 아이들과 탁구를 같이 치기도 하고, 산에 올라 자연을 호흡하게 한다.

앞으로의 희망은 환경관리분야별로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가능한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생명의 예술가라 하지 않던가. 불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구파 환경관리인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의 분전을 기대해본다. ◀